

남녀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성미¹, 박미리^{2*}

¹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경산1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en and Women highschool student's sexual abuse

Sung-Mi Kim¹ and Meera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녀고등학생의 성폭력 개념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대처법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D광역시 고등학생 5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 성희롱 경험 실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폭력 개념 인식은 음흉한 눈길로 보는 것, 선정적 그림과 글 강요, 성적 농담, 외모에 노골적 표현, 대중교통 이용 시 고의적인 몸 밀착에서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대처는 성폭력 발생장소, 시간, 가해자에 대한 인식, 성폭력 원인, 도움 요청 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처벌과 예방은 법률지식, 처벌 기준, 예방대책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었고, 성교육 경험과 요구는 성교육 시기, 방법, 성폭력 성교육 유무, 성교육 및 성폭력 지식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절실하다고 본다.

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Men and Women high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attitude toward, and reaction to sexual violence in terms of men and women difference.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1st to 30th in 2013 from 563 highschool students in D city. SPSS 19.0 with percentage, real number and χ^2 test i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e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dents'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or harrassment. Secondly,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including looking at the body insidiously, forcing lascivious writing or picture, sexual jokes, vulgar expression about appearance, or intentional body contacts in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to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are found between boys and girls. Lastly, different recognitions, attitudes and reactions were produced according to the place and time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attacker relationship, the cause of the sexual violence, and attitude toward the victim when rescue.

Key Words : Adolescents, High school, Recognition, Sexual violence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한국의 성폭력 발생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데, 청소년기의 성폭력 발생률은 38.3%이며, 지난 5년 동안 3.8배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1], 청소년의 성폭력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성폭력에 노출되어도 은폐되거나 신고율이 저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성장으로 신고율이 증가 추세여서[1], 청소년의 성폭력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13년 대구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eera Park(Gyeongsan Univ.)

Tel: +82-53-850-8263 email: minerva32@paran.com

Received January 8, 2014

Revised (1st January 28, 2014, 2nd February 4,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최근 가정의 해체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집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은 성인사이트에서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과장된 성을 접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성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각종 성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2].

청소년기는 전기(13-15세), 중기(16-18세), 후기(19-25세)로 구분하는데[3]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인 중기 청소년기는 성의식의 발달과 생식·출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로,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4].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특징과 성인기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기이며 혼란과 반항의 기질을 보이는 부정기(negative phase)이므로 이 시기의 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성폭력 피해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차후 성폭력에 대한 방어능력의 상실로 재 피해도 우려된다[5]. 특히 한국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우울,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 등으로 삶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결혼 후 부부관계, 가족관계 손상, 살인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6,7].

청소년기 성폭력 가해자는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을 지니고 있지 않아 성폭력을 가한 아이는 부모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벼운 사건이나 그저 재미있는 놀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의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해자 청소년이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단순히 가담했다는 아이도 많고 그것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정확이나 퇴학 등 처벌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8,9].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내 성폭력, 부부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성폭력개념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성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성불평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며, 그릇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치유방법이 될 수 있다[10,11].

문제의 심각성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6]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및 추행 성희롱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따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올바른 성문화와 성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비디오 시청이나

집단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율에 맡겨진 형식적 교육인 실정이다[8].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고, 성폭력 발생 또한 복잡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또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폭력 개념 사정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6].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대처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폭력 처벌과 예방에 대한 인식과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과 요구에 대하여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광역시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여학생 288명 남학생 275명으로 총 56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Kim[4], Kong[12]등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후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문항, 성폭력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 대처방안을 묻는 11문항, 성폭력 처벌에 관한 생각을 묻는 13문항,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에 관한 8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였으며 각 학교 반별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설

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600부를 배부하여 부적합한 37부를 제외한 56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19.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성폭력에 대한 남·여 고등학생의 인식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남·여 고등학교 각각 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288명(51.2%), 남자 275명(48.8%)이었으며, 학년은 고1 537명(95.4%), 고2 26명(4.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거주상태는 부모님과 거주 557명(99.0%), 친척집 거주 3명(0.5%), 기타 3명(0.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아버지 학력은 무학 1명(0.2%), 초등졸 2명(0.4%), 중졸 14명(2.5%), 고졸 254명(45.1%), 대졸 292명(51.9%)으로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이었다. 대상자의 어머니 학력은 무학 1명(0.2%), 초등졸 2명(0.4%), 중졸 14명(2.5%), 고졸 330명(58.6%), 대졸 216명(38.4%)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		n	%
Gender	female	288	51.2
	male	275	48.8
Grade of high school	First	537	95.4
	Second	26	4.6
Living with	With parents	557	99.0
	With relatives	3	0.5
	Etc.	3	0.5
Father's education	Uneducated	1	0.2
	Elementary school	2	0.4
	Middle school	14	2.5
	High school	254	45.1
	≥college	292	51.9
Mother's education degree	Uneducated	1	0.2
	Elementary school	2	0.4
	Middle school	14	2.5
	High school	330	58.6
	≥college	216	38.4

3.2 대상자의 성폭력, 성희롱 경험실태

대상자의 성폭력, 성희롱 경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여학생 26명(9.0%), 남학생 6명(2.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Table 2].

[Table 2]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Experience	Yes	32(5.7)	26(9.0)	6(2.2)	12.299	<.001
	No	531(94.3)	262(91.0)	269(97.8)		

3.3 대상자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음흉한 눈길로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된다.’($p=.003$), ‘선정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폭력이다.’($p < .001$),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한 기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p=.005$), ‘웃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p < .001$), ‘대중교통 안에서 고의로 몸을 밀착시키는 것은 성폭력이다.’($p=.001$)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폭력 개념 차이가 있었다[Table 3].

성폭력 개념에 대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흉한 눈길로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된다.’를 “예”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 252명(87.5%), 남학생 214명(77.8%)이었으며, ‘선정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폭력이다.’를 “예”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 260명(90.3%), 남학생 209명(76.0%)이었다.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한 기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를 “예”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 256명(88.9%), 남학생 220명(80.0%)이었으며, ‘웃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를 “예”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 237명(82.3%), 남학생 186명(67.6%)이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 고의로 몸을 밀착시키는 것은 성폭력이다.’를 “예”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 264명(91.7%), 남학생 225명(81.8%)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성폭력의 인식, 태도, 대처

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대처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발생 장소($p=.016$), 성폭력 발생 시간($p=.001$),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p < .001$),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p < .001$), 성폭력을 당한 친구의 도운 요건

[Table 3] Recognized for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Unwanted sexual discrimination	Yes	464 (82.4)	232 (80.6)	232 (84.4)	1.408	.268
	No	99 (17.6)	56 (19.4)	43 (15.6)		
Looking at any part of the body by nasty eye	Yes	466 (82.8)	252 (87.5)	214 (77.8)	9.247	.003
	No	97 (17.2)	36 (12.5)	61 (22.2)		
Forced to look at pictures or posts racy	Yes	469 (83.3)	260 (90.3)	209 (76.0)	20.618	<.001
	No	94 (16.7)	28 (9.7)	66 (24.0)		
Unpleasant by a sex joke	Yes	476 (84.5)	256 (88.9)	220 (80.0)	8.508	.005
	No	87 (15.5)	32 (11.1)	55 (20.0)		
Obscene expressions for clothes or appearance	Yes	423 (75.1)	237 (82.3)	186 (67.6)	16.172	<.001
	No	140 (24.9)	51 (17.7)	89 (32.4)		
Obscene dialing	Yes	515 (91.5)	263 (91.3)	252 (91.6)	0.018	1.000
	No	48 (8.5)	25 (8.7)	23 (8.4)		
willful close contact at public transport	Yes	489 (86.9)	264 (91.7)	225 (81.8)	11.952	.001
	No	74 (13.1)	24 (8.3)	50 (18.2)		
Forced to hug or a kiss.	Yes	542 (96.3)	276 (95.8)	266 (96.7)	0.313	.659
	No	21 (3.7)	12 (4.2)	9 (3.3)		
Attempted rape	Yes	550 (97.7)	283 (98.3)	267 (97.1)	0.858	.409
	No	13(2.3)	5(1.7)	8(2.9)		
Rape	Yes	556 (98.8)	287 (99.7)	269 (97.8)	3.856	.063
	No	7(1.2)	1(0.7)	6(2.2)		

시($p<.001$), 성폭력은 당한 친구에 대한 태도($p<.001$)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성폭력의 인식, 태도 및 대처에 대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어느 곳이 가능’이 여학생 131명(45.5%), 남학생 105명(38.2%), ‘인적이 드문 곳’이 여학생 84명(29.2%), 남학생 87명(31.6%)이었다. 성폭력 발생 시간은 ‘어느 시간이나 발생’은 여학생 235명(81.6%), 남학생 188명(68.4%)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에서 ‘누구나 가능’이 여학생 210명(72.9%), 남학생 160명(58.2%)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우발적’이 여학생 126명(43.8%), 남학생 104명(37.8%), ‘남성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여학생 44명(15.3%), 남

학생 25명(9.1%)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여성의 심한 노출, 자극적 행동’은 여학생 17명(5.9%), 남학생 63명(22.9%)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많았다. 성폭력을 당한 친구의 도움 요청 시에 ‘부모님께 상의 유도’가 여학생 105명(36.5%), 남학생 58명(21.1%)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는 여학생 46명(16.0%), 남학생 68명(24.7%)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많았다. 성폭력을 당한 친구에 대한 태도는 ‘나에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짐’은 여학생 159명(55.2%), 남학생 174명(63.3%)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으며, ‘여성모두의 일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은 여학생 113명(39.2%), 남학생 49명(17.8%)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3.5 성폭력 처벌과 예방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성폭력 처벌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지식($p<.001$), 성폭력 처벌 기준($p<.001$), 가장 시급한 성폭력 예방 대책($p<.001$)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Table 5].

성폭력 처벌과 예방에 대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지식은 ‘모르고 있음’이 여학생 122명(42.4%), 남학생 82명(29.8%)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성폭력 처벌 기준은 ‘강력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에 대해 여학생 266명(92.4%), 남학생 217명(78.9%)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시급한 성폭력 예방 대책은 ‘개개인이 조심’은 여학생 30명(10.4%), 남학생 65명(23.6%)로 남학생이 더 많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 제정’은 여학생 207명(71.9%), 남학생 118명(42.9%)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3.6 성교육 경험과 요구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과 요구는 성교육 시기($p=.003$), 성교육 방법($p=.037$),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 유무($p<.001$), 성폭력 관련 성교육 방법($p<.001$), 성교육 및 성폭력 지식($p=.023$)의 항목에서 남녀학생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중학교 때,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 주로 집단교육의 방식으로 성교육이 받았으나,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은 여학생의 64.2%, 남학생의 37.1%만이 받았으며, 전문가에게 이성폭력 관련 성교육 방법을 받았다. 성교육 및 성폭력 지식은 여학생의 49.7%, 남학생 59.3%가 충분하고 느끼고 있었다.

[Table 4] Sexual violence recognition, attitudes and coping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Place of occurrence	Strange place	100 (17.8)	55 (19.1)	45 (16.4)	12.274	.016
	Off the beaten path	171 (30.4)	84 (29.2)	87 (31.6)		
	places of entertainment	13(2.3)	6(2.1)	7(2.5)		
	Victim's home	16(2.8)	8(2.8)	8(2.9)		
	Offender's home	7(1.2)	1(0.3)	6(2.2)		
	Anywhere	236 (41.9)	131 (45.5)	105 (38.2)		
	Unknown	16(2.8)	2(0.7)	14(5.1)		
	Etc.	4(0.7)	1(0.3)	3(1.1)		
	Evening	10(1.8)	5(1.7)	5(1.8)		
	Time of occurrence	Night	116 (20.6)	40 (13.9)		
	Dawn	14(2.5)	8(2.8)	6(2.2)		
	Anytime	423 (75.1)	235 (81.6)	188 (68.4)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Stranger	140 (24.9)	63 (21.9)	77 (28.0)	2.825	.098
	Acquaintance	423 (75.1)	225 (78.1)	198 (72.0)		
	With a history of mental	57 (10.1)	30 (10.4)	27 (9.8)		
	With low levels of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64 (11.4)	30 (10.4)	34 (12.4)		
Recognized for the perpetrator	With high levels of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22(3.9)	7(2.4)	15(5.5)	26.501	<.001
	everyone	370 (65.7)	210 (72.9)	160 (58.2)		
	Unknown	43 (7.6)	9(3.1)	34 (12.4)		
	Etc.	7(1.2)	2(0.7)	5(1.8)		
The victim's age & sex	at 10(female)	343 (60.9)	185 (64.2)	158 (57.5)	5.072	.280
	at 20(female)	206 (36.6)	99 (34.4)	107 (38.9)		
	at 30(female)	3(0.5)	1(0.3)	2(0.7)		
	at 40(female)	1(0.2)	0(0.0)	1(0.4)		
	Etc.(male)	10(1.8)	3(1.0)	7(2.5)		

[Table 4] Continued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Cause	accidental , because of the male sexual urge	230 (40.9)	126 (43.8)	104 (37.8)	42.034	<.001
	Deliberate and premeditated by men	69 (12.3)	44 (15.3)	25 (9.1)		
	Irritating behavior and significant exposure by women	80 (14.2)	17 (5.9)	63 (22.9)		
	Absent desperate resistance	11(2.0)	4(1.4)	7(2.5)		
	Absent Sexual violence-oriented sex education	59 (10.5)	26 (9.0)	33 (12.0)		
	Influence of the mass media to create gender commercialization	114 (20.2)	71 (24.7)	43 (15.6)		
	Suicide	26(4.6)	8(2.8)	18(6.5)		
	Hide, because shame	24(4.3)	11(3.8)	13(4.7)		
	Ask for help because an accident	106 (18.8)	48 (16.7)	58 (21.1)		
	Revenge	129 (22.9)	68 (23.6)	61 (22.2)		
Coping with	Be reported to the police	257 (45.6)	142 (49.3)	115 (41.8)	7.924	.160
	Etc.	21(3.7)	11(3.8)	10(3.6)		
	Friends	83 (14.7)	44 (15.3)	39 (14.2)		
	Family	308 (54.7)	160 (55.6)	148 (48.1)		
Counseling subjects	Teachers	15(2.7)	8(2.8)	7(2.5)	3.145	.534
	Experts	138 (24.5)	70 (24.3)	68 (24.7)		
	Etc.	19(3.4)	6(2.1)	13(4.7)		
	Induce to consult by parents	163 (29.0)	105 (36.5)	58 (21.1)		
Request for help of a friend	Induce to consult by teachers	22(3.9)	6(2.1)	16(5.8)	32.232	<.001
	Visit expert with friends	209 (37.1)	112 (38.9)	97 (35.3)		
	help to forget memories	41(7.3)	17(5.9)	24(8.7)		
	Be reported to the police for Offender	114 (20.2)	46 (16.0)	68 (24.7)		
	Resolve themselves	5(0.9)	0(0.0)	5(1.8)		
	Etc.	9(1.6)	2(0.7)	7(2.6)		

[Table 5] Recognized for Sexual violence Punish and prevention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Knowl edge of laws punish ing on Sexual violence	Know well	26(4.6)	3(1.0)	23(8.4)	24.413	<.001
	Know broadly	73 (13.0)	34 (11.8)	39 (14.2)		
	Know a little bit	226 (40.1)	115 (39.9)	111 (40.4)		
	Not know	204 (36.2)	122 (42.4)	82 (29.8)		
Based on the penalti es for Sexual violence	Not know at all	34(6.0)	14(4.9)	20(7.3)	40.233	<.001
	Strictly punish because Severely crimes	483 (85.8)	266 (92.4)	217 (78.9)		
	Punishment according to law	21(3.7)	0(0.0)	21(7.6)		
	Be social blamed for the problem outside the scope of the law	16(2.8)	5(1.7)	11(4.0)		
	Unable to punished Except for rape	2(0.4)	0(0.0)	2(0.7)		
	Not Sure	10(1.8)	0(0.0)	10(3.6)		
	Etc.	31(5.5)	17(5.9)	14(5.1)		
	Watch yourself	95 (16.9)	30 (10.4)	65 (23.6)		
	Proper sex education implemented	62 (11.0)	16 (5.6)	46 (16.7)		
	Sexual violence prevention campaign	19(3.4)	5(1.7)	14(5.1)		
Most pressin g measu res on Sexual violence preven tion	Crackdown for entertainment and decadent businesses	20(3.6)	8(2.8)	12(4.4)	56.710	<.001
	strong legislation to prevent accidents and to protect the victims	325 (57.7)	207 (71.9)	118 (42.9)		
	Task force installation for Sexual violence	30(5.3)	16(5.6)	14(5.1)		
	Etc.	12(2.1)	6(2.1)	6(2.2)		

[Table 6] Sex education experience and requirements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Sex education	Yes	563 (100.0)	288 (100.0)	275 (100.0)		
	No	0(0.0)	0(0.0)	0(0.0)		
Sex education time	Elementary school	108 (19.2)	50 (17.4)	58 (21.1)	11.673	.003
	Middle school	258 (45.8)	152 (52.8)	106 (38.5)		
	High school	197 (35.0)	86 (29.9)	111 (40.4)		
	By parents	7(1.2)	4(1.4)	3(1.1)		
Sex education Provider	By teachers	281 (49.9)	142 (49.3)	139 (50.5)	1.240	.743
	By experts	274 (48.7)	142 (49.3)	132 (48.0)		
	Self-education	1(0.2)	0(0.0)	1(0.4)		
Sex education me thods	1:1	9(1.6)	4(1.4)	5(1.8)	10.214	.037
	1:group	513 (91.1)	271 (94.1)	242 (88.0)		
	Talking with friends	14 (2.5)	2 (0.7)	12 (4.4)		
	Learning from books	1(0.2)	0(0.0)	1(0.4)		
	Etc.	26(4.6)	11(3.8)	15(5.5)		
	Overall knowledge about sex	401 (71.2)	202 (70.1)	199 (72.4)		
Sex education content	Differences in sex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112 (19.9)	56 (19.4)	56 (20.4)	4.941	.176
	pregnancy, delivery	43(7.6)	28(9.7)	15(5.5)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issues	7(1.2)	2(0.7)	5(1.8)		
Sex education experienc e related to sexual violence	Yes	287 (51.0)	185 (64.2)	102 (37.1)	41.479	<.001
	No	276 (49.0)	103 (35.8)	173 (62.9)		

[Table 6] Continued

		Total (n=563)	Female (n=288)	Male (n=275)	χ^2	p		
		n(%)	n(%)	n(%)				
	Learn at home from parents	33 (5.9)	19 (6.6)	14 (5.1)	18.437	.002		
	Learn at school from teachers	97 (17.2)	42 (14.6)	55 (20.0)				
Sex education methods related to sexual violence	Learn from experts	403 (71.6)	221 (76.7)	182 (66.2)				
	Learn from friends	6(1.1)	0(0.0)	6(2.2)				
	Learn from Newspapers, magazines, TV etc.	17(3.0) 7(1.2)	5(1.7) 1(0.3)	12(4.4) 6(2.2)				
Level of knowledge about sex education and sexual violence	Enough	306 (54.4)	143 (49.7)	163 (59.3)			5.247	.023
	Not enough	257 (45.6)	145(50.3)	112 (40.7)				

4. 논의

본 연구에서 남녀학생의 성폭력·성희롱 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 9.0%, 남학생 2.2%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약자이고, 성폭력의 가해자가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13].

또한 성폭력의 경험이 전체 5.7%으로 나타났는데, Cha와 Choi[14]의 도시학생이 농촌학생보다 성폭력 경험이 낮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D시는 인구수 25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15],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은 농촌 거주 학생들에 비하여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의 통제를 받으며, 부모님의 보살핌 하에 바로 귀가를 하게 되므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기회

가 적은 반면 소도시나 농촌지역 학생들은 방과 후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율시간이 많고, 부모님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자율시간이 많아 불건전한 놀이문화에 쉽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져 도시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16].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음흉한 눈길로 신체 일부를 보는 것’, ‘선정적 그림이나 글을 보도록 강요’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신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만을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시각적인 영역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선행연구[2,11,16]와 유사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행위로 윩길 때 폭력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선행연구[4,11,17]와 유사하게, ‘대중교통 안에서 고의적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것’과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거라는 과거의 통념과는 달리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주위의 지인에서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12,17]과 유사한 결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계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 발생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Lim[18]이 성폭력이 주로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상의한 결과인데,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성장으로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1] 교내 단체성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식습득의 기회 증가로 성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들은 성폭력이 어느 시간이나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Cha[16]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72.1%, 여학생의 89.7%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력이 호발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상의하다. Cha[16]는 도시근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는 인구수 250만이 넘는 대도시[15]를 대상으로 하여, 성교육의 참여횟수가 많은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식습득의 기회 증가가 많아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대상지역의 특성차로 여겨지며, 추후 더 많은 지역의 대도시 청소년들과 도시근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 및 확대 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를 확인·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녀학생 모두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

였으나, 그 다음 원인으로 여학생의 15.3%가 ‘남성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경우’때문에, 남학생의 22.9%가 ‘여성의 심한 노출, 자극적 행동’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성적본능과 여성의 노출문제’라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는 10여년 전에 시행된 선행연구[2,6,9]의 결과와 유사하며 세월이 흘렀어도 사회의식의 변화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 사회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역시 선행연구[1,10,11,19]와 유사하였다. 성폭력을 당한 친구의 도움 요청 시에 남녀학생 모두 전문기관에 상의하겠다고 하였지만, 남학생(68명, 24.7%)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여학생(46명, 16.0%)은 ‘부모님께 상의를 유도’한다고 하여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다. 남녀학생 모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지식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는 2013년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자료결과[8]와 유사하게 우리사회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죄의식 없이 성폭행 하면서도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었고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여성인권신장과 양성평등모토로 정부부처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6].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성폭력 예방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사회전반적인 성교육 및 성지식 전파가 필요하며[20], 성관련 교육시 법률적 지식에 관한 내용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11,12,18,21].

여학생은 중학교 때,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 주로 집단교육의 방식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은 여학생의 64.2%, 남학생의 37.1%만이 받았으며, 전문가에게 이성폭력 관련 성교육을 받았다. 성교육 및 성폭력 지식은 여학생의 49.7%, 남학생 59.3%가 충분하고 느끼고 있었다. 80%이상이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70% 이상이 성폭력지식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던 Lee[11]와 Kim[19]의 연구에 비해 현재 성관련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관련 지식습득의 기회 증가로 성폭력 지식은 높아졌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 낮아 인식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22].

청소년기의 성폭력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0],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9]. 성가치관과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겪는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기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성폭력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돕에 도움이 된다[4].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집단교육으로 행해지며,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2,11,12,19]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성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시 인식개선과 성폭력예방 등의 내용 포함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23].

5. 제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망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유추되며, 이에 따른 성폭력 개념과 인식 정도 및 교육요구도 역시 다를 것으로 유추되므로,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교재 및 활용방안 모색 또한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Survey of Sexual violence*, 2010. [cited November 14, 2009], Available From: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82000-201000056(accessed December, 10, 2013)
- [2] Shin, H. S, Yang, H The predict of sexual violence by adolescents :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No. 15, 2005.
- [3] Oh, J. S., Lee, I. H., *Child-Youth Welfare*, Seoul University Press, pp 5-8, 2002.
- [4] Kim, Y. L.,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sexual viol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onam University, 2000.
- [5] Nelson, P. *Growing up the hard way*, *Mademoiselle*, pp 156-157, 1984.
- [6]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 Trends in counseling at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cited February, 4, 2008, Available From: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accessed December, 10, 2013)

[7] Jung, Y. J., (*A Study on the Psycho-social damage of The juvenile in sexual violence*,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03.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analysis for healing and recovery of sexual abuse victims*, 2011. [cited November 31, 2011], Available From: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570>(accessed December, 10, 2013)

[9]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exual violence counseling results 2001, 2002*.

[10] Kim, Y. H., *Inspect the juvenile problem recognition on the sexual violence and practical approach for the examination the welfare action program*,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05.

[11] Lee, J. K., (*A study on sexual violence of adolescence in Kyunggi province*,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1998

[12] Kong, M. H.,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Its Factors,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No 6, pp110-137, 1995.

[13] Kim, J. H., *Explores existential of life feminist, Doctor's thesis, Ewha University*, 1998.

[14] Cha. Y. J., Choi, Y. H.,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Recognition of Sexual Assault and Attitude of Sexual Role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er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9, No. 3, pp.443-449, 2008.

[15]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of population and family status*, 2010, [cited December, 31, 2010], Available From: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accessed December, 10, 2013)

[16] Cha, D. S., (*A Study on Sexual Violence and Coping Strategies in Youths : Focusing on a comparison between men and wome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7.

[17] Shin, K. S., *Effect of Relapse Prevention Programs with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 Juvenile*, Docto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9.

[18] Lim, J. H., *Social welfare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Survey of Youth Sexual violence*,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2006.

[19] Kim, Y. W., A Study of punishment level for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Seoul raw review*, Vol. 20, No. 23, pp145-177, 2013.

[20]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Plans on Sex education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in 2008 (Including prostituti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2008. [cited November, 28, 2008], Available From: <http://www.pen.go.kr/www/bbs/board.knf?boid=b121006172043&wid=86>(accessed December, 10, 2013)

[21]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Measuring the effects and improvement disclosure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system*, 2002. [cited December, 31, 2002], Available From: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accessed December, 10, 2013)

[22] Kim, J. H., A study on the roles of school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 No. 3, pp 127-144, 2000

[23] Kim, H. N., *The Solutions of the Young Sexual Assault*,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김 성 미(Sung-Mi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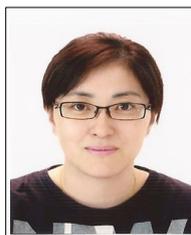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81년 12월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병원 재직
- 199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저출산, 임신·분만, 모유수유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경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피임